

여민락령

與民樂令

여민락령(與民樂令)

〈여민락령〉은 〈여민락만〉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연주되었던 기록이 나타나는 여민락계통 음악의 한 종류이다. 20세기 초 〈해령〉이 파생된 이후, 해령과 대비하여 〈본령〉이라고도 하며, ‘화평한 봄날의 음악’이라는 뜻의 〈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이라 부르기도 한다. 궁중의 행악이나 연례악에 사용되었으며, 조선 말에는 〈하황은〉과 〈봉래의〉 정재 반주로도 쓰였다. 하지만 순조 28년(1828) 이후 정재 반주악의 용도가 줄어들었고, 1901년 5월 진찬 이후 더 이상 정재 반주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황제, 태후의 출궁과 환궁악으로만 사용되었다.

현행 〈여민락령〉은 『속악원보』 권7 방향보로 전하는 〈여민락령〉 악보의 전체 5장 중에서 일(一)장만을 변주한 곡이다. 두 악보를 비교해보면, 현행 〈여민락령〉은 『속악원보』 권7 방향보에 비해 간음(間音)이 삽입되거나 선율이 같거나 일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당피리 · 대금 · 해금 · 아쟁 · 좌고 · 장구 · 박으로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편종 · 편경 · 방향이 함께 편성되기도 한다. 선율은 황 · 태 · 중 · 임 · 남의 5음음계이며, 〈여민락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단이 없는 불규칙한 음악으로, 자유롭게 연주되는 듯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묘미가 있다.

여민락령 與民樂令

태평준지곡 太平春之曲

涇	仲	南仲	△	潢	南	南	潢
汰	太	太	潢	潢	林	林	南汰
潢	黃	黃	林	潢	潢	潢	南
南	潢	△	潢林	潢	潢	南	潢
△	△	太	潢	△	汰	△	潢
潢	南	林	仲	潢	潢	潢	南
林	南林	仲	太	南	南	潢南	△
潢	汰	林	仲	△	林	潢	潢
潢	林潢	南	△	汰	南	潢	南
仲	仲	林	南林	潢	潢	潢	潢
南	南	南	潢	潢	潢	潢	潢
△	潢	林	林	潢	潢	潢	潢
仲	南	潢	仲	南汰	林	潢南	潢
南	林	南	△	潢	南	汰	潢
林	△	林潢	林	南	潢	潢	潢
南	潢	潢	太	林	汰	潢	太
潢	潢	南	△	潢	潢	潢	林
南	汰	△	林	南	汰	潢	太林
林	潢	潢	太	仲	潢	潢	△
△	汰	南	仲	仲	南	潢	潢

太	南
仲	仲
南	仲
林	南 仲
仲	太
△	黃
汰	△
南	南
潢	仲
沖	南
汰	南
南	林
潢	南
汰	潢
仲	南
林	林
△	仲
潢	△
南	潢
汰	△

